

KISA & KISA

와인동호회 Wine and the City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이지만, KISA의 모든 직원이 365일 24시간 정보보호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쁨 때로 온 몸이 범벅된 이야기, 자신들이 소장했던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은 사연까지. KISA & KISA를 통해 KISA라는 울타리로 묶인 직원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해 본다. 그리고 첫 번째 순서로 와인 동호회 'Wine and the City'를 찾았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와인 신드롬, 우리도 동참한다

Wine and the City

지난 1~2년 동안 회사원들의 필독서가 된 만화책 '신의 물방울'은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와인 신드롬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됐다. 대

세가 와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듯, 지난 2006년 9월 KISA에서도 와인동호회 'Wine and the City'가 생겨났다.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와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던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퇴근 후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청담동의 와인 바를 찾아, 체내에 포도주스(?) 꾸준히 축적시키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얼마 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저렴하지만 다양한 와인이, 그러면서도 분위기는 끝내주는 '아지트'가 포착된 것이다. 새로운 아지트 속에서 보르도, 캘리포니아, 제3세계 와인 등 매번 주제를 정해 놓고 비교해 가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라는 게 이들의 설명. 물론 절대 과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철칙이다.



'한 잔의 와인' 그것이면 족해

와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와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 이 와인동호회 역시 다르진

않을 것이다. "몇 년간 와인 아카데미를 다니며 해박한 지식을 갖춘 회원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술의 한 종류로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Wine and the City의 한 회원(이름은 끝까지 밝히지 말아 달란다)은 "수천 가지에 이르는 와인은 개인마다 좋아하는 맛과 향이 달라 와인의 품종, 빈티지, 라벨 읽는 법 등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며 와인은 단지 분위기 메이커일 뿐,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 바로 와인 동호회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 S

